

제5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성명	가파로바 알로한	학년	4	생년월일	1991년 2월 6일
----	----	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

내 손바닥에 서 자식 행복을 만드
 는 이 있다. 그 후로 자신을 위해 서
 만드 는 것이 말이 있지 만 나 를 위 해 서
 가 장 소 중 한 사 람 을 만 들 었 다.
 그 럼 그 리 기 대 회 에 참 가 할 때 내 가
 '웃 고 있 는 행 복' 이 라 는 그 림 을 그 렸 다.
 그 림 가 운 데 내 가 웃 고 있 는 데 하 늘 에
 서 두 분 은 나 를 바라 보 고 웃 고 있 다.
 그 분 들 미 소 는 태 양 처 럼 밝 고 태 양 처
 럼 따 뜻 하 게 그 렸 겠 다. 그 런 데 그 분 들
 누 군 지 저 도 모 르 는 데 부 머 님 모 습 을
 그 렸 게 상 상 한 다.
 나 는 할 머 니 랑 산 다. 할 머 니 는 시 각 에
 서 모 다 까 버 려 줄 잤 다 고 하 신 다. 할 머
 니 는 나 를 잘 돌 보 고 어 머 니 대 신 어
 머 니, 아 버 지 대 신 아 버 지 이 셴 다. 그 런 데
 아 직 도 나 는 사 실 누 군 지, 누 구 자 식 인
 지 모 르 다. 부 머 님 처 럼 나 를 키 우 고 있
 는 할 머 니 를 어 머 니 처 럼 사 랑 한 다.
 할 머 니 는 내 행 복 이 너 라 고 하 신 다.
 내 행 복 은 아 음 속 에 있 는 부 머 님 의
 모 습 이 라 고 생 각 했 는 데...
 어 떤 성 공 을 하 면 나 와 함 께 기 뻐 하
 는 사 람 이 있 는 것 을 원 한 다. 슬 픔 도
 기쁨 도 나 누 는 사 람 이 있 으 면 아 죽 줄

W: Good.
 점수 : 82.5 + 4.0 = 86.5

제5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사마르칸트 외국어 대학교	성명	가파르바 말로하트	학년	4	생년월일	1991년 2월 6일
----	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

글엔데... 할머니도 내 결에 서 있고 또
 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
 고 있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나를
 도와 주는 사람이 없다.

그러던 어느 날 책에서 어떤 건설을
 읽었다. 알라는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
 사람을 만들 때 조금만 흠이 없었
 었다. 알라는 사람을 아무 잘못 없이
 만들었는데 그 넘어 있는 흠으로 무
 었 만들는지 몰랐다. 그 때 사람에게
 흠으로 무엇을 만들어 줄 거라고
 물었다. 사람은 나를 위해 행복을 만
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. 그 때 알라는
 그 흠을 사람 손바닥에 두고 그 틀
 속에 행복을 자신이 만들라고 했다.
 그 건설을 읽고는 손바닥에도 '자
 행'을 만드는데 흠이 있다'라는 생각
 들었다. 부모님에게 물어보니 '사람
 이지만 나는 천 번째 할아버지에게,
 필요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.
 그 흠으로 세상에 서 감각 아
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. 그러
 그 흠으로 어떤 사랑을 만들었다. 그
 사랑은 아침마다 거울에 서 나를 바라보
 고 미소한다. 그 사랑은 바로 나이다.

네가

네가

